

# 사이버대학 학습자관련 변인과 중도탈락 간의 관계 규명을 위한 실증적 연구<sup>1)</sup>

임연욱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과

## 요약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A사이버 대학에서 2002년 1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의 누적입학생 가운데 제적, 자퇴한 중도탈락생의 배경변인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해 사이버대학에서의 중도탈락의 원인을 알아보았다. 학습 시간의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나, 온라인교육에의 부적응과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도 적지 않은 학생들에게 중도탈락의 원인이 되었다. 특히 온라인교육에의 부적응이나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이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되었던 학생들은 다른 학생이나 교수와의 상호작용 부족을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개발이나 등록금 지원 외에도 학생 상호간, 학생-교수 간의 상호작용 증대를 통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 온라인 학습의 어려움을 나누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키워드:** 사이버대학, 학습자관련 변인, 중도이탈, 중도탈락, 원격대학

## A substanti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variables and dropout in Cyber University

Yeonwook Im

Hanyang Cyber University, Dept. of Educational Technology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s of dropout in a survey of 348 dropouts from a cyber university located in Seoul, Korea. Most common reasons are time constraints due to work or family-related needs. Difficulties in adjusting to online learning environment and uncertainties regarding the value of a cyber university degree also played important roles. Drop-out students who pointed to these two reasons also suffered from lack of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with other students and professors. Efforts to address these issues are in order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ime-efficient learning strategies and financial aids.

**keywords:** Distance University, Cyber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E-learning, Drop-outs

## 1. 서론

국내 사이버대학은 지난 2001년 처음 9개교가 설립되었으며,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점차 증가하여 현재 4년제 15개교, 2년제 2개교 등 총 17개의 사이버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시간·공간·연령 등에 제약을 받지 않고 대학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20~40대 직장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왔다.

사이버대학에 많은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지만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오프라인 대학의 경우보다 더 빈번하게 중도탈락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정혜정[10]에 의하면 원격대학인 방송통신대학교의 졸업률이 12.6%에 불과하였고,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도 재학생 3명 중 1명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서선주[6]의 연구에 인용된 한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중도탈락률이 38.3%였다.<sup>2)</sup> 이는 오프라인대학의 제적률이 2년제 대학의 경우 6.6%이고 4년제 대학의 경우 4.3%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중도탈락률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e-learning에서의 중도탈락률이 전통적인 교육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sup>3)</sup>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는 연령, 학력,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demographic characteristics)이 기존 일반 교육기관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사이버대학에서의 중도탈락 요인에 대한 연구는 중도탈락의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좀 더 정확히 예측해 내고, 이들에게 전문적인 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내부적 지원을 통해 학생 개인의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중도탈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 이 논문은 정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4-003-B00194).
- 2) 서선주의 연구에 인용된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률은 입학한 첫 해의 중도탈락률이므로 4년 동안의 총 중도탈락률을 본다면 훨씬 높은 수준일 것이다.
- 3) Corporate University Exchange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오프라인의 중도탈락률이 15% 정도인 것에 비해 온라인의 중도탈락률은 70% 가량 된다[17]

온라인 교육에서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최근 들어 점차 주목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 등 중도탈락자의 배경변인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중도탈락자들을 직접 설문조사하여 중도탈락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하려는 시도는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중도탈락을 학습자의 부적응 문제로 보는 관점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대학 학생의 중도탈락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와 현황을 살펴보고,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중도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새로운 대응방안의 모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도탈락을 학습자의 부적응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학습자를 교육서비스의 구매자로 보는 보완적 시각을 더하여 중도탈락을 양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사이버대학 학생들이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 (2) 설문응답에 나타난 중도탈락의 원인은 중도탈락자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2.1. 중도탈락의 정의

중도탈락(dropout)은 교육 및 연수를 받을 목적으로 교육·연수기관에 등록한 후 소정의 과정을 마치지 않고 그 교육·연수기관에서의 직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자퇴와 제적<sup>4)</sup>이 중도탈락에 해당한다. 외형적으로만 볼 때 자퇴는 자발적인 것이고 제적은 비자발적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등록금 미납으로 제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자발적인 중도탈락은 성적이나 품행과 관련된 극히 일부의 사유로 제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자발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자에 따라 중도탈락은 학업중단이나 학업미수족, 중도이탈 등으로 불리우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정의가 본질

- 4) 휴학은 1년 이내 복학하지 않으면 자동 제적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휴학은 제적에 포함하지 않았다.

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도탈락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 2.2. 오프라인 대학교육에서의 중도탈락

대학교육에서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는 오프라인 교육에서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이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대표적인 연구는 Tinto[19]의 중도탈락모형이다. Tinto의 모형은 대학생들의 중도탈락현상에 관한 단편적이고 기술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개인이 대학에서 학업의 중단에 이르는 과정을 체계적인 이론으로 밝히려는 시도이다. Tinto의 학생통합모형(Student Integration Model)은 대학의 학문적,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학습자의 적응 실패가 학업중단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별 학생이 대학 입학 전에 가졌던 자신의 목표나 자신이 다닐 대학에 대한 애착(commitment)이 중도탈락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Tinto는 학생의 목표나 대학에 대한 애착이 다시 성별이나 학업 능력과 같은 개인 특성, 고등학교 성적이나 수상경력, 교과외 활동과 같은 입학 전 경험, 그리고 가정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권균[2]은 대학생 중도탈락의 원인을 개인요인(가정배경요인), 대학특성요인, 상호작용요인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았다. 특히 개인의 지적능력, 성격 및 태도, 기대 및 열망 대학학습에 대한 동기, 대학의 질적 수준, 대학의 사회적 위신, 대학의 소재지 및 입학전형 시기 등의 개인 및 대학특성요인 이외에도 수업시간이나 학과 내에서의 형식적 상호작용, 그리고 과외활동 등의 비형식적 상호작용을 통한 다른 대학 구성원과의 사회적 통합을 중도탈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병식[8]은 대학별로 학생의 학업중단 방식과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교간 차이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대학의 입학난이도, 소재지, 학교규모, 설립유형 뿐 아니라 대학의 분위기 등 구성원들의 지각과 같은 심리적 환경 또한 대학생들의 학업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수연[3]은 2년제 및 4년제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 거주

지와 대학 소재지의 일치여부, 연령 등이 학업지속 확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학생의 학업지속 확률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거주지가 대학 소재지와 일치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학업지속 확률이 더 높았다. 연령은 그 자체로서보다는 비학령기인 학생의 학업지속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 2.3 온라인 대학교육에서의 중도탈락

원격교육의 상황은 오프라인 대학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원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도탈락을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Kember[15]는 원격교육자의 학습이 교육기관과 떨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학습자 대부분이 학교를 떠난 지 오래된 성인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나이, 자녀수, 주거환경 등의 학습자 개인 상황변인을 주된 중도탈락 원인으로 보고, 이전교육경험변인은 배제함으로써 전통적 교육상황에서의 Tinto의 모델을 원격교육 상황에 맞게 재설정하고자 하였다. Thompson[18] 역시 학습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수, 학업변수, 학교행정변수 등이 학습자의 학업지속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Chyung 등[13]은 학습지속자와 비지속자의 수년간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교육과정의 초기에 느끼는 만족도, 학습자의 직업적, 개인적 관심사와 코스내용간의 불일치가 학습지속의 중요 변인임을 밝혀내고, 학습자의 불만족은 과다한 정보와 지식의 양, 자신감 부족, 사이버 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미흡과 관계있다고 주장하였다.

Morgan과 Tam[16]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원격교육에서의 학업이수의 장애요인들을 가정환경과 금전문제와 같은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 학습량이나 상호작용기회와 같은 기관적 요인(Institutional factor), 학습습관이나 시간관리와 같은 성향적 요인(Dispositional factor), 이해도나 관심사와 같은 인식론적 요인(Epistemological factor)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였다.

Murray[12]는 온라인 학습의 중도탈락이 높은 이유로 강사의 노력 부족과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생들

의 안이한 기대를 들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이 오프라인 교육보다 쉬울 거라 기대하고 시작하지만 많은 타이핑과 독서, 잦은 시험과 과제 요구에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청각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 교수의 가이드와 피드백 소홀, 부족한 공부 시간,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기술 부족 등의 이유 때문에 학습자들이 중도 탈락한다고 한다.

Dreaver[14]의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네 가지 분류의 장애요인 이외에도 코스 자체와 교수설계 등의 외부적 요인, 문화적 요인, 그리고 교수자료의 준비, 교수자료전달인프라, 학습자 지원의 복합적 요인 등을 언급하면서, 교수자는 이러한 중도탈락의 복합적 요인들을 인지하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진형[5]이 방송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개별 변인과 환경적 특징을 위주로 학업중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령변인, 성적 변인, 문자매체의 활용 변인의 영향력이 의미 있게 나타났다. 방송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원격 교육 중도탈락 연구[10]에서는 원격교육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개인적 배경변인, 동기변인, 학문적 환경 변인, 사회적 환경 변인, 심리적 변인 등 5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그 관련성을 연구한 바 있다.

송상호[7]는 학습지속과 학습동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습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웹기반 교육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컴퓨터와 멀티미디어 사용의 신기성효과가 없으면 학습자는 곧 지루해지기 쉽다. 둘째, 교수자와 학습자의 시간적, 공간적 거리로 인해 학습자가 고립감을 느낀다. 학습자는 이렇게 자신의 동기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속에서 끊임없이 참여지속의 의사결정을 해나가며, 참여 동기가 없는 채 등록만 하고 실제로 학습하지 않는다면 교육 내용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결국 중도탈락을 하게 되며, 학습초기에 참여 동기가 높다 하더라도 점차 학습열의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역시 중도탈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이루어진 국내 사이버대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로는 서선주[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는 사이버대 재학생의 통계와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의 배경 및 기타 요인과 중도탈락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기

존 중도탈락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졌던 연령, 학력, 성적, 학과, 직종, 등록금, 교육내용의 질과 수준, 학교 인프라, 교수자·학교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변인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소속감과 평가방식의 문제점까지도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시켰으며, 첫 학기 성적 역시 학습자들의 초기 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Belawati[11]는 원격교육이 면대면 교육보다 매우 낮은 학습지속률을 보이는 이유로 오프라인 대학에 비해 원격대학 입학생의 낮은 수학 능력과 원격대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낮은 인지도를 제시한 바 있다. 임연옥[9]은 사이버대학의 낮은 재등록률이 사이버대학의 학생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 오프라인 대학과의 비형평성 등의 문제로 사이버대학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거나, 사이버대학의 질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어 있어서 재등록에 대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 2.4. 중도탈락 요인의 분석 모형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표1>과 같이 원격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모형을 기본 틀로 삼아 중도탈락의 원인을 추출해 보았다. Tinto의 통합모형과 그에 따른 후속 연구들은 대체로 중도탈락을 학업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대학생활 부적응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사이버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중도탈락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는 학습자의 부적응이다. 이는 개인적인 환경이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인데, 이는 다시 건강과 관련된 문제와 학습시간이 부족한 경우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도 첫 번째 카테고리에 속한다.

<표 2> 설문응답자의 개별 특성

<표 1> 사이버대학 중도탈락의 원인

학습자의 부적응	학습시간 부족
	건강문제
	온라인교육환경 부적응
교육서비스 구매중단	금전문제
	사이버대학 인지도 불만
	교육내용 불만
	학교서비스 불만

학습자 개인의 부적응 외에도 학습자의 적극적인 선택에 의한 중도탈락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이버대학의 학생들이 대부분 직장이 있거나 가정주부인 성인 학습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중요하다. 교육비용과 같은 금전문제나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만, 교육내용이나 학교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이 그러한 범주에 속하는 중도탈락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이버대학의 학생을 교육서비스의 구매자로 본다면 사이버대학에서의 중도탈락은 예산문제나 교육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구매행위를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사이버대학에서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에서는 간과되고 있다.<sup>5)</sup>

### 3. 연구방법 및 절차

#### 3.1.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 2002년 3월에 개교한 서울 소재의 한 사이버 대학에서 2002년 1학기부터 2005년 1학기까지의 입학한 학생 중에 학업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한 2,023명 중 설문에 응답한 348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다.<sup>6)</sup> <표 2>에 의하면 설

항목	구분	설문응답자 (명)	비율	총제적생 (명)	비율
성별	남자	227	65%	1311	65%
	여자	121	35%	712	35%
연령	20대	134	39%	726	36%
	30대	173	50%	1044	51%
	40대	37	11%	198	10%
	50대	4	1%	54	3%
	60대	0	0%	0	0%
	기타	0	0%	1	0%
학력	검정고시	12	3%	84	4%
	고졸	255	73%	1427	70%
	전문대졸	64	18%	394	19%
	대학졸	13	4%	103	5%
	대학원졸	4	1%	15	1%
평점	0.0~1.5	168	48%	1092	54%
	1.5~2.5	66	19%	395	19%
	2.5~3.5	62	18%	322	16%
	3.5~4.0	52	15%	148	7%
	4.0~4.5	0	0%	66	3%
이수율	0%~20%	61	18%	451	22%
	20%~40%	29	8%	226	11%
	40%~60%	24	7%	214	11%
	60%~80%	52	15%	275	14%
	80%~100%	182	52%	857	42%
직업	공공기관	12	3%	64	3%
	군인	4	1%	35	2%
	금융업	10	3%	73	4%
	사무직	127	36%	606	30%
	제조업	23	7%	110	5%
	유통업	17	5%	104	5%
	서비스업	43	12%	241	12%
	무직	12	3%	129	6%
기타	100	29%	661	33%	
거주지	서울	154	44%	991	49%
	경기·인천	148	43%	727	36%
	충청·대전	14	4%	70	3%
	강원	4	1%	27	1%
	호남·광주	9	3%	45	2%
	경상·부산·대구	18	5%	147	7%
	제주	1	0%	7	0%
	해외·기타	0	0%	9	0%
계		348	100%	2023	100%

5) 경영학 분야에서는 e-learning 환경에서의 중도탈락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자를 교육서비스의 구매자로 파악한 연구들이 많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e-learning 환경은 사이버대학과는 지속기간이나 기관의 목적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있으므로 중도탈락의 원인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6) 같은 기간 중 이 사이버대학의 입학생은 총 6,632명이었고, 이 가운데 2,032명이 제적되거나 자퇴하였다. 설문은 모든 중도탈락자에 배포되었으나 설문응답자는 모두 348명이므로 설문응답률은 약 17%이다.

문응답자는 중도탈락자 전체와 비교하여 개인별 특성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설문응답자는 전체 중도탈락자 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평점이 높거나 이수율이 높은 중도탈락자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sup>7)</sup>

7) 이수율은 신청학점 대비 취득학점으로 이수율이 높다는 것은 수강신청을 한 후 학점을 포기한 과목의 비율이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중도탈락자 중 약 3분의 2가 남자였으며 30대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20대가 40% 정도를 차지하였다. 학력별로는 중도탈락자의 절대 다수인 73%가 고졸이었으며 전문대졸이 18%를 차지하였다. 학사학위 이상은 5%에 불과하였다.

성적별로는 절반 가량(48%)이 평점 1.5 미만<sup>8)</sup>이었으며, 이수율 기준으로는 설문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가 80% 이상의 이수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전체의 36%로 가장 많았으며 서비스업도 12%로 상대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거주지별로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87%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

### 3.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모두 22문항으로 객관식 및 자유기술 응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객관식의 경우 항목별로 단수 선택만 가능하게 하였다. 설문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묻는 문항과 중도탈락의 이유를 묻는 문항,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학업과 관련한 경험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에서 중도탈락의 이유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 및 실증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간부족, 금전문제, 건강문제, 온라인교육 부적응, 학교의 인지도 불만, 교육내용 불만, 학교서비스 불만, 기타의 8개로 구분하여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였다.

설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교육공학 전문가 3인과 사이버대학 교수 2인, 사이버대학 운영진 2명, 그리고 20명의 학생들로부터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각 설문 문항에 잘 응답할 수 있는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항은 없는 지, 추가될 문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A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방법은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문서 형태로 설문을 제작하여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A사이버대

---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8) 1.5 미만은 학사경고에 해당하는 평점이다.

학교에 진학하였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생 2,02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독려하는 이메일을 3차례에 걸쳐 발송하였다. 설문 기간은 2005년 3월 29일부터 2005년 6월 2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 결과 총 348명의 설문 응답을 얻었고, 348명의 자료가 본 연구의 기초 자료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의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의 원인 분석을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SPSS 11.0으로 전산처리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중도탈락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량 및 빈도표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습자 배경변인에 따른 중도탈락의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습자 배경변인인 학과, 입학시기, 입학학년, 전형구분, 자퇴시기, 자퇴학년, 성별, 직업, 학력, 거주지, 제적구분(제적/자퇴), 결혼여부, 자녀유무, 연령,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 이수율을 교차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들을 추출하였다.

## 4. 연구 결과

### 4.1. 중도탈락을 분석

A 사이버대학의 경우 2002학년도 1학기부터 2005학년도 1학기까지의 입학생은 총 6,632명이었으며 2005년 5월 17일 현재 이 가운데 2,023명이 중도탈락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이들의 개별 특성에 따른 중도탈락률을 알아보면 <표 3>에서와 같다. 전체 중도탈락률은 30.50%였는데, 학습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중도탈락률은 꽤 큰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중도탈락률은 여자가 20.47%로 남자의 41.57%보다 크게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아졌다. 또한 평점이 높을수록 중도탈락률이 낮았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3],[5],[6],[10],[20].

이수율과 중도탈락률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수율이 80%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중도탈락률이 매우 높았다. 이는 학점 포기가 많을수록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력도 중도탈락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전문대 졸업자의 중도탈락률이 21.82%로 평균보다 매우 낮은 편이었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대학졸업자의 중도탈락률이 각각 39.07%와 37.87%로 평균보다 높았다. 신·편입 학년 역시 중도

탈락률과 관련한 것으로 드러났다. 1학년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2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그리고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의 중도탈락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이전의 대학 경험이 중도탈락률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거주지와 직업은 특별한 패턴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중도탈락률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직업에서는 유통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중도탈락률이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경기, 대전, 충남, 대구, 해외의 중도탈락률이 낮은 편이었으며, 부산, 경북, 전북, 제주의 중도탈락률이 특히 높은 편이었다.

<표 3> 학습자 개별 특성에 따른 중도탈락률

항목	구분	총입학생 (명)	총제적생 (명)	중도탈락 율(%)
성별	남자	3154	1311	41.57
	여자	3478	712	20.47
연령	20대	2206	726	32.91
	30대	3316	1044	31.48
	40대	849	198	23.32
	50대	242	54	22.31
	60대	14	0	0.00
	기타	5	1	20.00
학력	검정고시	215	84	39.07
	고졸	4290	1427	33.26
	전문대졸	1806	394	21.82
	대학졸	272	103	37.87
	대학원졸	49	15	30.61
신·편 입학년	1학년	4531	1679	37.06
	2학년	830	231	27.83
	3학년	1271	113	8.89
평점	0.0~1.5	1709	1092	63.90
	1.5~2.5	1072	395	36.85
	2.5~3.5	1956	322	16.46
	3.5~4.0	1319	148	11.22
	4.0~4.5	576	66	11.46
이수율	0%~20%	594	451	75.93
	20%~40%	389	226	58.10
	40%~60%	454	214	47.14
	60%~80%	750	275	36.67
	80%~100%	4445	857	19.28
직업	공공기관	313	64	20.45
	군인	129	35	27.13
	금융업	276	73	26.45
	사무직	2010	606	30.15
	제조업	342	110	32.16
	유통업	283	104	36.75
	서비스업	677	241	35.60
	무직	388	129	33.25
	기타	2214	661	29.86
거주지	서울	3420	991	28.98
	경기	1958	593	30.29
	인천	345	134	38.84
	대전·충남	182	55	21.34
	충북	48	15	31.25
	강원	86	27	31.40
	대구	82	19	23.17
	부산	130	52	40.00
	경북	79	36	45.57
	전북	42	18	42.86
	광주·전남	75	27	36.00
	울산·경남	118	40	33.90
	제주	13	7	53.85
	해외·기타	54	9	16.67
합계		6632	2023	30.50

<표 4>는 입학 후 중도탈락이 시간에 걸쳐 일어나는 빈도를 보여준다. 2002학년도 1학년 신입생 중 58.69%가 2005년 5월 17일 현재 중도탈락한 상태

이다. 이 중 3분의 1 이상이 첫 해에 중도탈락하였으며, 3분의 2 이상이 2학년을 마치지 않고 중도탈락하였다. 이러한 패턴은 그 후에 1학년이나 2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3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은 중도탈락률이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연도별 누적 중도탈락률

입학 연도	입학 학년	2002	2003	2004	2005	누적중도탈락률(%)
2002	1	21.39	17.81	14.86	4.64	58.69
2003	1		27.16	16.28	7.02	50.46
	2		25.00	16.39	3.28	44.67
2004	1			28.01	8.59	36.60
	2			27.02	9.12	36.14
	3			14.60	2.20	16.80
2005	1				4.06	4.06
	2				6.31	6.31
	3				3.76	3.76

#### 4.2. 사이버대학에서의 중도탈락 요인

설문응답자들에게 학업중단 요인을 선택하도록 한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시간 부족(41.4%)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으며, 금전문제(20.4%)가 그 뒤를 따랐다. ‘직장업무 및 가정일의 과다로 학업과의 병행 불가능’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었다.<sup>9)</sup> ‘금전문제’가 그 뒤를 따랐다. ‘사이버교육(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적응’, ‘사이버대학에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도 각각 8.6%와 7.2%로 상당수 학생들에게 중도탈락의 요인이었다.

9) 학습시간 부족은 정확히는 설문에서 ‘직장업무 및 가정일의 과다로 학업과의 병행 불가능’으로 기술되었으나, 이는 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으며, 필요한 학습량에 비해 가용한 학습시간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표 5> 사이버대학 중도탈락 요인

항 목	빈도(명)	백분율(%)
학습시간 부족	144	41.4
금전문제	71	20.4
기타	44	12.6
사이버교육 부적응	30	8.6
사이버대학 인지도 불만	25	7.2
교육내용 불만	17	4.9
건강문제	12	3.4
학교서비스 불만	5	1.4
계	348	100.0

#### 4.3. 학습자 배경변인과 중도탈락 요인의 교차분석

학업중단 사유와 학습자 배경변인인 학과, 입학시기, 입학학년, 전형구분, 자퇴시기, 자퇴학년, 성별, 직업, 학력, 거주지, 제적구분(제적/자퇴), 결혼여부, 자녀유무, 연령,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 이수율을 교차분석한 결과, 제적구분과 신청학점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표 6>은 학사경고제적, 타교입학제적, 자퇴, 미복학제적, 미등록제적 등 제적 유형별로 중도탈락의 원인의 분포를 보여준다. 제적 유형 가운데 미등록제적의 수가 2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퇴가 9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적유형별 중도탈락요인을 보면, 제적 학생의 경우 금전문제와 학습시간부족을 주된 요인으로 들었으나, 자퇴학생의 경우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적응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 그리고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6> 제적구분별 학업중단요인(%)

항목	학사 경고 제적	타교 입학 제적	자퇴	미복학 제적	미등록 제적	전체 (%)
금전문제			11 (15.5)	8 (11.3)	52 (73.2)	71 (100.0)
시간부족	6 (4.2)		33 (22.9)	6 (4.2)	99 (68.8)	144 (100.0)
건강문제			5 (41.7)		7 (58.3)	12 (100.0)
사이버교육	1		12	1	16	30

부적응	(3.3)		(40.0)	(3.3)	(53.3)	(100.0)
교육내용			10 (58.8)		7 (41.2)	17 (100.0)
학교서비스			2 (40.0)		3 (60.0)	5 (100.0)
사이버대학 인지도	2 (8.0)		11 (44.0)	3 (12.0)	9 (36.0)	25 (100.0)
기타		1 (2.3)	14 (31.8)	4 (9.1)	25 (56.8)	44 (100.0)
전체	9 (2.6)	1 (0.3)	98 (28.2)	22 (6.3)	218 (62.6)	348 (100.0)

(p=0.046)

<표 7>은 신청학점별로 학업중단요인의 분포를 보여준다. 금전문제와 학습시간 부족은 공통적인 중도탈락요인으로 드러났지만, 사이버대학의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은 신청학점이 많은 학생의 경우에 특히 두드러진 중도탈락의 원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신청학점이 많을수록 졸업시점이 가까우며 기존의 학습투자가 많으므로 중도탈락의 개연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나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중도탈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시사점을 갖는다.

<표 7> 신청학점별 학업중단요인(%)

항목	80 학점 이상	60- 79 학점	40- 59 학점	20- 39 학점	0- 19 학점	전체 (%)
금전 문제	2 (2.8)	4 (5.6)	10 (14.1)	27 (38.0)	28 (39.4)	71 (100.0)
시간 부족		10 (6.9)	14 (9.7)	42 (29.2)	78 (54.2)	144 (100.0)
건강 문제				5 (41.7)	7 (58.3)	12 (100.0)
사 이 버 교 육 부 적 응		2 (6.7)	4 (13.3)	6 (20.0)	18 (60.0)	30 (100.0)
교육 내용		1 (5.9)	1 (5.9)	3 (17.6)	12 (70.6)	17 (100.0)
학교 서 비 스				2 (40.0)	3 (60.0)	5 (100.0)
사 이 버 대 학 인 지 도	4 (16.0)	3 (12.0)	2 (8.0)	5 (20.0)	11 (44.0)	25 (100.0)
기타	1 (2.3)	2 (4.5)	6 (13.6)	12 (27.3)	23 (52.3)	44 (100.0)
전체	7 (2.0)	22 (6.3)	37 (10.6)	102 (29.3)	180 (51.7)	348 (100.0)

(p=0.024)

이상의 분석에서 중도탈락요인을 학습시간부족이나 금전문제로 꼽은 학생들과 사이버대학 인지도에 대한 불만이나 온라인교육에 대한 부적응을 꼽은 학생들 간에는 눈에 띄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학습시간 부족이나 금전문제에 대한 대응과 사이버대학의 인지도 불안감이나 온라인교육에 대한 부적응에 대한 대응은 매우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후자의 경우에는 사이버대학의 학습 환경에 대한 시사점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고도 주의를 요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하의 분석은 사이버대학 인지도에 대한 불만이나 온라인학습 부적응을 중도탈락 원인으로 꼽은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4.4. 학습자 설문문항과 학업중단요인의 교차분석**

A사이버대학에서 중도탈락한 학생들을 이후에 타 대학에 입학/편입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하여 볼 때 두 그룹 간 학업중단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표8> 참조). 중도탈락이후 다른 대학에 입학/편입한 학생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보다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적응’,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 등을 중도탈락사유로 꼽은 비율이 높았고, 이에 비해 ‘직장업무 및 가정일의 과다로 학업과의 병행불가능’을 중도탈락사유로 든 비율은 낮았다. 이는 다른 일과 학업과의 병행 부담을 지닌 학생의 경우는 학업을 중도하차 하게 되지만,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적응이나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 혹은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 등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다른 대학, 특히 오프라인 대학으로의 편입을 통해 학업을 지속한다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표 8> 사이버대학 자퇴 이후 타 대학 입학/편입 여부와 학업중단이유의 교차분석 결과(%)

항목	금전 문제	시간 부족	건강 문제	사이버교육 부적응	교육내용 불만	학교서비스 불만	사이버대학 인지도 불만	기타	전체 (%)
아니오	66 (20.9)	142 (44.9)	12 (3.8)	23 (7.3)	12 (3.8)	5 (1.6)	18 (5.7)	38 (12.0)	316 (100.0)
예	5 (15.6)	2 (6.3)		7 (21.9)	5 (15.6)		7 (21.9)	6 (18.8)	32 (100.0)
전체	71 (20.4)	144 (41.4)	12 (3.4)	30 (8.6)	17 (4.9)	5 (1.4)	25 (7.2)	44 (12.6)	348 (100.0)

(p=0.000)

<표 9>에서의 교차분석 결과를 보면, 사이버대학 재학 당시 느꼈던 난점들이 중도탈락요인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의 부족을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꼽은 비율은 사이버

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 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적응,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 등을 중도탈락요인으로 제시한 학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9> 사이버대 재학 당시 온라인학습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느꼈던 점과 학업중단요인의 교차분석 결과(%)

항목	컴퓨터 사용능력 부족	학기당 학과 신청절차	시간관의 실패	학업에 부적응	상호작용의 부족 (고독감)	기타	전체 (%)
금전 문제	2 (2.8)	4 (5.6)	28 (39.4)	22 (31.0)	8 (11.3)	7 (9.9)	71 (100.0)
시간 부족	1 (0.7)	10 (6.9)	75 (52.1)	40 (27.8)	13 (9.0)	5 (3.5)	144 (100.0)
건강 문제	1 (8.3)	1 (8.3)	2 (16.7)	5 (41.7)	3 (25.0)		12 (100.0)
온라인 교육 부적응	2 (6.7)		3 (10.0)	19 (63.3)	5 (16.7)	1 (3.3)	30 (100.0)
교육 내용		1 (5.9)	2 (11.8)	6 (35.3)	5 (29.4)	3 (17.6)	17 (100.0)
학교 서비스			1 (20.0)	1 (20.0)		3 (60.0)	5 (100.0)
사이버 대학 인지도		1 (4.0)	3 (12.0)	9 (36.0)	10 (40.0)	2 (8.0)	25 (100.0)
기타		2 (4.5)	14 (31.8)	14 (31.8)	5 (11.4)	9 (20.5)	44 (100.0)
전체	6 (1.7)	19 (5.5)	128 (36.8)	116 (33.3)	49 (14.1)	30 (8.6)	348 (100.0)

(p=0.000)

<표 10>에서 보듯이 사이버대학의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도 마찬가지로 중도탈락요인과 긴밀한 관계를 보였다.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수업 진도 및 양을 따라가기 힘들’을 선택한 학생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직업과 학업과의 병행 불가능’을 학업중단사유로 든 비율이 나타난 반면 (51.9%),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을 학업중단요인으로 들은 비율은 낮았다(1.5%). 이에 비하여 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적응을 중도탈락요인으로 꼽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실습의 부족이나

강의 콘텐츠에 대한 불만이 높았으며,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나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만을 중도탈락요인으로 꼽은 학생들은 실습의 부족,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

<표 10> 사이버대 교육내용 관련 불만과 학업중단요인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항목	실습의 부족	교육 내용	과다한 학습량	강의 운영에 대한 불만	강의 콘텐츠에 대한 불만	기타	전체 (%)
금전 문제	18 (25.4)	5 (7.0)	23 (32.4)	9 (12.7)	8 (11.3)	8 (11.3)	71 (100.0)
시간 부족	17 (11.8)	13 (9.0)	70 (48.6)	21 (14.6)	15 (10.4)	8 (5.6)	144 (100.0)
건강 문제	3 (2.5)		5 (4.7)	2 (1.67)	1 (0.83)	1 (0.83)	12 (100.0)
사이버 교육 부적응	5 (16.7)	2 (6.7)	13 (43.3)	2 (6.7)	6 (20.0)	2 (6.7)	30 (100.0)
교육 내용		4 (23.5)	2 (11.8)	4 (23.5)	7 (41.2)		17 (100.0)
학교 서비스			1 (20.0)	1 (20.0)		3 (60.0)	5 (100.0)
사이버 대학 인지도	6 (24.0)	4 (16.0)	7 (28.0)	2 (8.0)	3 (12.0)	3 (12.0)	25 (100.0)
기타	2 (4.5)	4 (9.1)	14 (31.8)	5 (11.4)	7 (15.9)	12 (27.3)	44 (100.0)
전체	51 (14.7)	32 (9.2)	135 (38.8)	46 (13.2)	47 (13.5)	37 (10.6)	348 (100.0)

(p=0.000)

<표 11>에서 보듯이 중도탈락 원인이 학습시간 부족이었던 학생들의 학교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주로 디지털도서관 등 학습지원시설의 부족, 컴퓨터 장비 및 기술적 지원시스템 부족 등에 집중되어 있는데 반해, 중도탈락원인이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이거나 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적응이었던 학생들

의 학교서비스에 대한 불만은 상대적으로 공동체 향상서비스의 부족에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사이버대 재학 당시 학교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경력개발 프로그램 및 취업서비스 제공의 부족'을 꼽은 학생의 경우 '등록금 등 금전문제'를 주된 학업중단요인으로 들었다.

<표 11> 사이버대 재학 당시 학교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학업중단요인의 교차분석 결과

항목	취업서비스 제공의 부족	교직원들의 실생활 서비스	공동체 향상서비스의 부족	온라인 학습 환경의 부족 (디지털도서관 등)	기술적 지원시스템의 부족	학사행정 지원시스템의 부족	기타	전체 (%)
금전 문제	8 (11.3)	1 (1.4)	14 (19.7)	12 (16.9)	1 (1.4)	29 (40.8)	6 (8.5)	71 (100.0)
시간 부족	3 (2.1)	2 (1.4)	29 (20.1)	48 (33.3)	8 (5.6)	47 (32.6)	7 (4.9)	144 (100.0)
건강 문제			3 (2.5)	5 (4.7)		2 (1.67)	2 (1.67)	12 (100.0)
사이버 교육 부적응	1 (3.3)	1 (3.3)	8 (26.7)	9 (30.0)	2 (6.7)	7 (23.3)	2 (6.7)	30 (100.0)
교육 내용	2 (11.8)		2 (11.8)	6 (35.3)	1 (5.9)	5 (29.4)	1 (5.9)	17 (100.0)
학교 서비스		1 (20.0)	1 (20.0)	1 (20.0)			2 (40.0)	5 (100.0)
사이버 대학 인지도	3 (12.0)	1 (4.0)	9 (36.0)	5 (20.0)	2 (8.0)	4 (16.0)	1 (4.0)	25 (100.0)
기타	4 (9.1)	2 (4.5)	7 (15.9)	10 (22.7)	2 (4.5)	9 (20.5)	10 (22.7)	44 (100.0)
전체	21 (6.0)	8 (2.3)	73 (21.0)	96 (27.6)	16 (4.6)	103 (29.6)	31 (8.9)	348 (100.0)

(p=0.015)

차후 사이버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직장 업무 및 가정일의 과다로 학업과의 병행불가능'(44.9%)과 '등록금 등 금전문제(23.7%)'를 학업중단사유로 든 비율이 높았고, 사이버대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의 경우 '사이버교육

(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적응'(24.3%)과 '사이버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18.9%)을 학업중단 사유로 든 비율이 높았다. 이를 해석해보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있어 금전 문제나 시간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중도 탈락한 학생들은 차후 학업을 계속할 의향이 높지만, 사이버교육에 대한 부적응 문제나 사이버대의 사회적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학생의 경우, 차후 학업을 계속할 의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2> 차후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향과 학업중단요인의 교차분석 결과(%)

항 목	금 전 문제	시 간 부족	건 강 문제	사 이 버 교육 부적응	교 육 내용	학 서 스	사 이 버 대 학 인 지 도	기 타	전 체 (%)
학업 지속 의향 없다	6 (8.1)	21 (28.4)	1 (1.4)	18 (24.3)	3 (4.1)	3 (4.1)	14 (18.9)	8 (10.8)	74 (100.0)
학업 지속 의향 있다	66 (23.7)	123 (44.9)	11 (4.0)	12 (4.4)	14 (5.1)	2 (0.7)	11 (4.0)	36 (13.1)	274 (100.0)
전체	71 (20.4)	144 (41.4)	12 (3.4)	30 (8.6)	17 (4.9)	5 (1.4)	25 (7.2)	44 (12.6)	348 (100.0)

(p=0.000)

사이버대 학습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낀 점과 차후 사이버대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향 간에도 상관관계가 높았다(<표13> 참조). 향후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학업에 부적응과 심리적 거리감, 고독감을 사이버대학에서의 학습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꼈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가상공간에서의 학업에 부적응한 학생이나 심리적 고독감을 느낀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을 다시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표

9>, <표 12>의 결과와 함께 볼 때, 중도탈락원인이 온라인학습에 대한 부적응이나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이었던 학생들은 가상공간에서의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리적 거리감과 고독감을 느끼며 결국 온라인 학습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 13> 사이버대 학습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 느낀 점과 차후 사이버대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향간의 교차분석 결과(%)

항목	있다	없다	전체 (%)
기타	24 (80.0)	6 (20.0)	30 (100.0)
컴퓨터 사용 능력 부족	5 (83.3)	1 (16.7)	6 (100.0)
학기당 신청학점 과다	16 (84.2)	3 (15.8)	19 (100.0)
시간관리의 실패	116 (90.6)	12 (9.4)	128 (100.0)
가상공간에서의 학업에 부적응	82 (70.7)	34 (29.3)	116 (100.0)
심리적 거리감, 고독감 (상호작용부족)	31 (63.3)	18 (36.7)	49 (100.0)
전체	274 (78.7)	74 (21.3)	348 (100.0)

(p=0.000)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온라인교육환경에의 부적응,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 순이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은 사이버대학의 재학생들 중 직업을 가진 학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다.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직업을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과정과 학습전략의 개발에 관한 후속 연구와 사이버 대학의 대응이 필요하다. 온라인 교육에서의 학습량이 오프라인의 그것에 비해 더 많다[1]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더욱 그러하다. 재정적인 문제로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이나 그런 상황에 처한 학생들에게는 지난 2005년 2학기부터 시행된 정부학자금 장기저리 대출지원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제도의 도입이 앞으로 학생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얼마나 경감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습시간 확보의 어려움과 재정적 어려움은 온라인교육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이 사이버대학에서는 학생의 구성상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사이버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군은 오프라인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군에 비하여 직업을 가진 학생의 비율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더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기 위한 비교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나 학자금 대출 기회의 확대 및 사이버대학의 교육과정을 오프라인대학의 교육과정과 다르게 구성하는 문제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온라인 교육에의 부적응과 사이버대학의 인지도에 대한 불안감을 이유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배려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들은 전체 설문 응답자의 16% 정도로 전체 중도탈락에서 그리 큰 비율은 아니지만, 차후 사이버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이유로 중도탈락한 학생들에 비해 월등히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이버대학에서 필요한 개선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들은 비교적 많은 학점을 취득한 후에도 중도탈락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제적에 비해 자퇴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들은 상호작용의 부재를 온라인 학습에서의 주된 어려움으로 꼽았고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중도탈락은 학생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이버대학이 적절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이 오프라인 대학에 비하여 훨씬 심각한 문제로 되어야 할 필연성은 반감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학습을 위한 교육과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학습자간 및 학습자-교수자간 상호작용의 확대가 사이버대학의 중도탈락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

라는 시사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이버 대학은 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결과 A사이버 대학의 중도탈락 현상은 다른 사이버 대학과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둘째, 표본은 2002년과 2005년 사이에 입학한 학생들만 포함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특히 사이버 대학이 신설되는 시기이므로 아직 교육 및 행정서비스가 정착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에서 관찰된 중도탈락 현상이 미래의 중도탈락과는 다른 특징을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이 결론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여겨지는 않지만,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사이버대학과 비교하거나 혹은 장기간에 걸친 관찰결과를 토대로 재확인해 보는 시도는 의미 있는 후속 연구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정보원 (2004). 2004 교육정보화백서.
- [2] 권균 (1991). 대학에서의 중도 퇴학 원인과 그 억제 방안. *교육학연구*, 29(3). 235-249.
- [3] 김수연 (1998). 전문대학생의 자퇴 및 휴학(계획) 결정 요인. *교육사회학연구*, 8(2). 77-107.
- [4] 매경 Economy. 2003년 5월 15일자.
- [5] 박진형 (1998). 원격대학생들의 학업중단 관련요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6] 서선주 (2004). 사이버대학생들의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7] 송상호 (2000). 동기적으로 적응적인 웹기반 수업 설계 방안의 고찰. *교육공학연구*, 16(2). 37-53.
- [8] 이병식 (2003). 대학생의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기관 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135-154.
- [9] 임연옥, 이광희 (2003).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중도이탈 문제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교육*, 30(3). 321-348.
- [10] 정혜정 (2000). 원격교육 학습자의 학습지속과 비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인력개발연구*, 2(1), 173-188.
- [11] Belawati, T. (1998). Increasing Student Persistence in Indonesian Post-Secondary Distance Education. *Distance Education* 19(1). 81-106.
- [12] Murray, B. (2001). What Makes Students Stay?. *eLearn Magazine* 10. available at <http://www.elearnmag.org/subpage.cfm?section=articles&article=22-1> [2001.12.10]
- [13] Chyung, Y., Winiacki, D. J., & Fenner, J. A. (1998). A case study: Increase enrollment by reducing dropout rates in adult distance education. *Paper presented at the 14th Annual Conference on Distance Education*
- [14] Dreaver, G. (2003). Student attrition in higher education: 'What was that you said?' (Working Paper Series 03/5, December). Lower Hutt: The Open Polytechnic of New Zealand.
- [15] Kember, D. (1989). A longitudinal-process model of drop-out from distance educatio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0(3). 278-301.
- [16] Morgan, C. & Maureen T. (1999).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distance education student attrition. *Distance Education*, 20(1). 96-108.
- [17] Shepherd, C. (2003). Endgame - encouraging completion in e-learning. *IT Training*, June 2003. Available at <http://www.elearningprofessional.com/articles/default.asp?PageID=1239#Lies,%20damn%20lies> [2003.8.24]
- [18] Thompson (1997). Distance education drop-out: What can we do?. *The Proceedings of the 6th Annual Teaching and Learning Forum* 97. available at <http://lsn.curtin.edu.au/tlf/tlf1997/thompson.html>
- [19] Tinto, V. (1975). Dropout from higher education : A theoretical synthesis of recent research.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45(1). 89-125.
- [20] Woodley, A. & Parlett, M. (1983). Student drop out. *Teaching at a distance*, 24. 2-23.

## 저자소개

임 연 옥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 석사  
 미국 하버드대학교 교육공학 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교육공학 박사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사이버교육, 블랜드 러닝, 교수설계